

광양 임대아파트 '폭력' 비화

임차인들 시정 진입 충돌 7명 부상

부도 위기에 처한 광양시 '창덕 에버빌' 임대아파트 문제가 폭력 사태로 번졌다.

지난 18일 밤 11시30분께 광양시 용강리 '창덕 에버빌' 아파트 임차인 700여명이 광양시청 앞에서 '창덕 에버빌' 사태 해결을 위한 시정 면담을 요구하며 시정 진입을 시도하는 등 4시간 동안 시위를 벌였다.

이 과정에서 경찰 5개 중대 500여명과 충돌을 빚어 이모(59)씨 등 임차인 3명과 경찰 4명 등 7명이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이날 사태는 새벽 3시께 이상용 시장이 사태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하면서 일단락됐지만, 이 시장이 주민들이 던진 물병에 머리를 맞기도 했다.

한편 '창덕 에버빌'의 사업시행자인 '창덕이앤씨'는 지난 2001년부터 주택기금 550억원과 이자 등 688억원을 국민은행에 상환하지 못하고 있으며, 은행 측은 지난달 26일 2천24가구 중 1천468가구에 대해 경매 통고를 했다.

/광양=김준호기자 kco@kwangju.co.kr

모의고사 성적 발표 앞두고...

여고 3년생 학교서 투신

19일 오후 1시10분께 광주시 남구 모 여고 본관 앞에서 이 학교 3학년 강모(18)양이 숨겨있는 것을 교사 이모(44)씨가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10m 높이인 3층 화장실 창문에서 강양의 지문이 발견된 점으로 미뤄 강양이 창문을 통해 투신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강양이 수첩에 "하루에 몇번이라도 죽고 싶었는데 버틴 것은 부모님의 사랑 때문이었다..."는 내용의 글을 적어 놓은 점 등으로 미뤄 대학진학 문제 등으로 고민하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정확한 자살 동기 등을 조사 중이다. 강양은 학교성적이 중상위권으로 간혹 사관학교 입학을 꿈꾸어 온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 학교는 최근 수능 모의고사를 봤으며, 이날 모의고사 성적 발표를 할 예정이었다./서민정기자 viola@kwangju.co.kr

'성매매 알선' 숙박업주 52명 입건

전남지방경찰청 영경수사대는 19일 속칭 '보도방'을 운영하면서 여관을 찾는 손님들에게 상습적으로 성매매를 알선해 온 혐의(성매매특별법 위반)로 보도방 업주 최모(45)씨를 구속하고 숙박업주 김모(51)씨 등 5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해 6월부터 최근까지 광주시 동구 모 빌라에 보도방을 차려놓고 성매매 여성 10명을 고용해 광주 시내 여관과 모텔 등에서 성매매를 알선한 뒤 소계비 명목으로 1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죽기전에 형님 꼭 만나야 하는데...”

■ 이산가족 상봉 신청 김상렬 응



김상렬씨가 19일 북한의 이산가족 상봉 중단 선언으로 6·25전쟁 때 납북된 형을 만나 보겠다는 희망이 사라졌다며 한숨짓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죽기 전에 우리 형님 꼭 만나야 하는데, 살아 계시거나 하는지...”

북한이 이산가족 상봉을 중단한다고 일반적으로 선언한 19일, 김상렬(76·광주시 서구 상무동)씨는 연신 부채를 부쳤다. 부채 바람으로라도 답답한 가슴을 뚫어 보려했지만, 맥이 탁 풀린 맘을 다잡지 못했다.

김씨가 한국전쟁 때 인민군에게 끌려간 형 상수(80)씨를 만나겠다고 대한적십자사에 이산가족 상봉 신청서를 낸 것은 지난 3일. 당시 열일곱이던 김씨가 목

北, 중단 선언에 낙담

6·25때 납북된 형님

아직 생사조차 몰라

“빨리 문제 풀렸으면”

포 이모네 집에서 머문 사이, 스물한 살 이던 형은 고향인 영암군 덕진면 운암리에 부모님과 함께 있다가 인민군에게 끌려 의용군에 편입됐다.

1년 뒤 함께 끌려간 이웃동네 사람 몇은 도망 나왔지만, 형은 끝내 모습을 나타내지 않았다. 부모님은 4형제 중 장남인 상수씨를 기다리는 눈치였지만, 잇을 만하면 찾아오는 경찰의 눈길에 무서워 내색도 하지 못하고 돌아가셨다. 결국 전쟁이 끝난 뒤 사망신고까지 하고 30년 전부터 제사도 지냈다.

가족들 사이에서도 형 얘기를 꺼내는 것은 ‘금기’(禁忌)였다. 특히 김씨의 큰

아들이 공군사관학교에 합격했다가 신원조회에서 탈락한 것이 형 때문이라고 생각돼서다.

하지만 피는 역시 진했다. TV를 통해 이산가족 상봉장면을 볼 때마다, ‘형이 살아있지 않을까’ ‘죽었다고 사망신고까지 한 사람들도 다시 만나는데’ 하는 등의 생각이 뇌리를 떠나지 않았다. 돌아 가신 어머니께서 새벽마다 장독대에 정화수(井華水)를 떠놓고 뭐라고 중얼거리던 모습도 선연히 되살아났다. 말씀은 하지 않았지만, 큰아들이 무사히 돌아오라는 기도였을 것이다.

결국 김씨는 지난 3일 ‘혹시나’ 하는 마음에 상봉신청을 했다. 형의 생사를 확인하는 것이 부모님에 대한 효도라는 생각도 들었기 때문이다.

“함께 잡혀갔다가 도망 나온 동네 사람에게 들으니 낙동강에서 대포에 맞아 돌아가셨다고는 하지만, 종종 꿈속에서도 보이는 것이 꼭 살아있을 것만 같아서...”

김씨는 “이산가족 상봉을 신청한 사람들이 대부분 나이 든 사람들”이라며 “하루라도 빨리 남북 간에 문제가 풀려서 헤어진 가족들이 만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씨와 같이 대한적십자사에 상봉을 신청한 이산가족은 광주·전남 2천300명을 비롯해 전국적으로 12만 명에 달한다.

남북은 지난 5일 화상상봉 후보자 300명에 대한 생사확인 의뢰서를 교환했고, 오는 27일 의뢰서에 대한 회보서를 주고 받을 예정이었다. 이를 바탕으로 최종 60명을 선정. 오는 8월 15일 화상상봉과 금강산 대면상봉을 추진할 계획이었다.

/이승배기자 lsb54@kwangju.co.kr

나원침 (6884)



연제2차(동림)이 대주 피오레
1,300여 세대 중 353세대 353세대
문의 (062)366-4220

법원 공무원 불친절한 태도에 분통

○...광주지방법원을 찾은 민원인이 술냄새를 풍기며 고압적인 태도로 일관하는 법원 공무원과 임직원들을 벌이다 112에 신고, 경찰이 출동하는 등 한때 소동.

○19일 낮 12시30분께 광주지방법원을 찾은 엄모(39)씨에 따르면 경매물건 인도명령신청서를 민원실에 접수한 뒤 직원들의 오락가락 ‘지시’에 송달료 납부와 인지 부작 등 일을 끝마칠 때까지 민원실·은행·경매계를 오가는 등 4시간여 동안 법원을 헤매고 다녔다는 것.

○엄씨는 “경매계에 신청서를 접수만 하면 모든 일이 끝날 줄 알았다”며 “술냄새를 풍기는 경매계 직원이 ‘대금 완납증명서 금액이 적혀져 있지 않으니 다시 민원실로 가라’는 말에 격분, 말다툼을 벌이다 화를 참지 못해 112에 신고했다”고 흥분.

○법원 경매계 직원은 이에 대해 “점심시간에 반주를 조금 한 것은 사실이지만 반말은 하지 않았으며, 단지 서류에 미비점이 있어 민원실로 가라고 했을 뿐”이라고 해명.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고시원 건물 화재 9명 사망

어제 오후 서울 잠실서

19일 오후 3시53분께 서울 송파구 잠실동 4층짜리 건물 지하 노래방에서 불이 나 이 건물 3~4층 고시원에 거주하는 박모(46)씨 등 9명이 숨졌다.

숨진 9명 이외도 고시생 등 10여명이 화상을 입고 매연을 들이마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일부는 중태인 것으로 알려져 사망자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화재 당시 노래방은 영업을 시작하지 않은 상태였고 불은 출동한 소방관들에 의해 27분만에 꺼졌다.

2층 건설회사 직원인 신모(60)씨는

“사무실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유리 출입문 사이로 불길과 연기가 구름처럼 몰려들어와 ‘불이야’라고 소리치면서 직원들이 아래로 뛰어내렸다. 3, 4층에선 여자들의 비명소리가 나더니 여자 2명이 위에서 뛰어내리다 부상하기도 했다. 이웃들이 사다리를 갖고와서 구조를 도왔다”고 말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불이 지하 1층에서 계단을 타고 1층 식당, 2층 건설회사를 거쳐 3층 원룸텔과 4층 고시원까지 번져 피해가 난 것으로 보고 목격자 등을 대상으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연합뉴스

사무실·가정서도 PC도박

북부경찰,IP 추적 검거

불법 성인 PC도박이 경찰의 단속을 피해 사무실과 가정집까지 파고 들고 있다. 광주 북부경찰은 19일 원룸에서 불법 도박프로그램이 깔린 컴퓨터를 설치한 뒤 영업을 한 혐의(도박개장 등)로 김모(32·광주시 서구 화정동)씨를 불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1일 불법 도박프로그램 업체인 C회사에 보증금 100만원과 계약금 500만원 등 600만원을 주고 프로그램을 제공받은 뒤 광주시 서구 화정동 J원룸 2층에 컴퓨터 9대

를 설치, 일반인을 상대로 달러비 7%를 받고 불법 PC도박을 벌여 2천만원을 벌어들였다.

경찰은 또 이날 자신의 사무실 컴퓨터에 ‘뉴파트너’라는 프로그램을 설치한 뒤 도박을 한 아모(29·북구 일곡동)씨도 불구속 입건했다. 아씨는 지난 5일 일곡동 K제약회사 사무실 컴퓨터에 도박 프로그램을 설치한 뒤, 1만~10만원의 판돈을 걸고 도박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경찰이 지난 16일 도박 프로그램 서버 5개를 압수, IP를 추적한 결과 달미가 잡혔다. /이승배기자 lsb54@kwangju.co.kr

서경빌딩 임대

● 세비: 20만원 - 200만원
● 기금: 500만원 (보증금 1000만원, 월 임대료, 사무비)
● 기금: 750만원 - 4000만원
● 기금: 1500만원 (보증금 2000만원) - 사서빌

● 1층: 100평 이상
● 2층: 100평 이상
● 3층: 100평 이상
● 4층: 100평 이상
● 5층: 100평 이상
● 6층: 100평 이상

● 1층: 100평 이상
● 2층: 100평 이상
● 3층: 100평 이상
● 4층: 100평 이상
● 5층: 100평 이상
● 6층: 100평 이상

● 1층: 100평 이상
● 2층: 100평 이상
● 3층: 100평 이상
● 4층: 100평 이상
● 5층: 100평 이상
● 6층: 100평 이상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 시몬스침대

● 시몬스 매트리스
● 시몬스 침대
● 시몬스 소파
● 시몬스 의자
● 시몬스 테이블

● 시몬스 매트리스
● 시몬스 침대
● 시몬스 소파
● 시몬스 의자
● 시몬스 테이블

● 시몬스 매트리스
● 시몬스 침대
● 시몬스 소파
● 시몬스 의자
● 시몬스 테이블